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영생 세계로 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 진정한 대책 나와



65세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했다고 야단들이다. 통계청이 8월 31일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16년 65세 고령인구는 677만 5000명으로 유소년인구 676만 80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정부의 현안이므로 정부 각 부처들은 앞 다퉈서 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는 곧 단행할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담당할 조직인 인구구조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고용부 등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그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세수(稅收) 부족을 야기하고, 고령화는 젊은 층들이 부양할 노인들이 늘어남으로 노인 복지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정부는 곧 파산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도시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근거있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내용

을 자세히 파악한 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같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필연적인 추이라고 보고 그들 국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인식과 해결책이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인 한국

저출산 고령화는 영생을 주는 구세주께서 출현한 결과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국제연합 UN보고서에 따르면 우

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26년으로, 프랑스(154년)보다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미혼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혼인 연령인 25~39세 미혼 여성은 213만1514명으로 조사돼 2005년(161만5569명)보다 51만5945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5~29세 여성은 10명 중 7.7명이 미혼으로 2005년(5.9명)보다 크게 늘었다. 35~39세 미혼율도 19.2%로 2005년(7.6%)의 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 출산 연령대 여성(25~39세) 전체로는 미혼률이 2005년 27.4%에서 42.2%로 증가했다. 셋째, 1인가구 또한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그다지 약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영생의 세계를 만들려는 구세주는 자신으로 음란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박멸소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더욱 거세지는 것은 구세주의 천지개벽의 일환이라고 하여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화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시대의 조짐을 알고 대처하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즉 영생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면 갈수록 노인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곧 올 것이고, 150세 200세까지 점점 그 수명이 늘어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취업 등과 같은 고령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작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구세주께서 만들고 있는 영생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16)
“자유율법은 마귀를 이기는 법”

승리제단은 자유율법을 지키는 곳입니다. 자유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율법이고, 마귀를 이기는 율법이고,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모든 욕망을 죽여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법이 바로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 자유율법 아래서 살아왔으며, 사망 아래서 살아왔으며, 이제 그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여 양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자유율법의 완성자요, 자유율법의 완성자가 의인이요, 의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단소식

새식구 100일 잔치



본부제단은 지난 8월 15일 새식구 장현우씨가 100일을 달성하여 100일 잔치를 열었다. 5월 7일부터 21일공부를 시작하여 8월 15일 무난히 100일을 마쳤다. 사실 새식구가 100일을 빠지지 않고 제단 출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생업이 있고, 마귀들의 집중경계가 있으므로 그걸 다 이기고 나와야 가능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21일을 세 번 나오면, 즉 63일을 계속해서 나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녹명(錄名)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늘나라 식구로 등록이 된다는 것으로서 구원권에 들어갔다 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놓는 것이다.

장현우씨는 1992년에 승리제단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 후 구세주

께서 육고를 치르실 때 제단을 떠났지만 승리신님 김종만 사장과 계속 교류를 하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제단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저는 새로운 발견과 창조라는 책을 읽고 승리제단에 영생이 있다고 해서 나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생을 찾았는데 그 영생이 승리제단에 있다니까 오게 된 것이었다. 당시 23세 때라 젊어서 일 위주로 생각하고 신앙이 뭔지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영생이 가능한지도 잘 몰랐다. 그런데 지금 100일이 되어보니 뭔가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윤봉수 회장을 비롯하여 먼저 나온 분들이 계속 잘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100일을 마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장현우씨의 승리를 기원한다.*

본부제단 4지역 3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본부제단(회장 윤봉수)은 5일 정기 구역장회의에서 8월 성적에 대한 시상 을 했다.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이 박순희 권사의 압도적인 지원에 힘입어 1등을 차지하였다. 2등은 조건우 승사의 전도 성적이 보태져 5 지역, 그리고 지난달 아쉽게 수상을 못 했던 3지역이 3등을 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구세주는 구원을 주

는 분이시다. 구원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것이다. 오늘 수상한 분들의 성격도 그대로 구원을 받을 때에 참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달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사를 했다.

-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3지역(지역장 김갑룡, 지회장 정은경)

- <구역>
- 1등: 33구역(박순희 구역장)
 - 2등: 25구역(정은경 구역장)
 - 3등: 49구역(조건우 구역장)

- <개인>
- 1등: 박순희 권사
 - 2등: 김수정님
 - 3등: 조건우 승사*

인사명령

- ▶ 본부제단 2지역장 서복목 승사
- ▶ 청주제단 책임승사 우덕환 승사

주어진 성직을 성실히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 성탄절 경축 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평택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야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